

日本 見聞記 <VIII>

일본의 높은 과학기술수준은 명치유신(1868년)이후 배출된 많은 지도자들의 열정과 공헌에 따른 것이다. 93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일본원자력산업회의 회장으로 활약한 아리자와 히로미(有澤廣己)박사는 일본에서 가장 존경받는 과학기술계 지도자였다. 그의 후계자인 무카이보 다카시(向坊隆), 금속물리학자 가야 세이지, 외무부대신을 지낸 나카야마 타로(中山太郎)박사 등 많은 지도자들이 일본의 과학기술을 이끌어 가고 있는 것이다.

이후 수많은 배출된 크고 작은 지도자들의 열정과 공헌을 간과할 수 없다.

과학기술계 지도자란 어떤 사람을 두고 말하느냐고 따지고 묻는다면 정확히 대답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영국의 제2차대전시의 영웅 몽고메리원수(元帥)의 「지도자의 길」 같은 책에서 이야기하는 지도자의 요건에 얼마나 부합되느냐도 분명하게 설명하기가 힘들 것이다. 그런데도 일본에는 과학기술계에서 지도자로 존중되고 존중되는 만큼 큰 역할을 다해온 커다란 존재감을 보이는 인물이 적지 않게 있었고, 몇명은 나도 일본 체재기간에 만나 말을 건네보기도 하고 어떤 이야는 주석에서 환담을 하기도 했다.

93세까지 지도자로 활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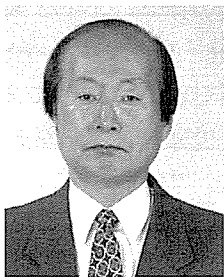
1977년에 주일과학관으로 부임해서 처음 인사를 하게 된 일본원자력산업회의 회장 아리자와 히로미(有澤廣己·1896년생)박사는 80살을 넘긴 고령의 원자력분야에서의 대지도자였다. 그뒤 아리자와회장을 만나 본 적이 여러번 있었는데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일본원자력산업회의의 부회장들이라든가 기타 간부들이 회장에게 나타내는 지극히 공손한 태도였다. 연령으로는 불과 4~5세 아래의 그들 역시 고령의 노인들인데도 무서운 선생님 앞에 몸을 사리는 제자의 태도와 다름이 없었다. 아리자와회장이 지도자로서의 자질이나 능력이 뛰어나고 쌓은 업적이 크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지도자란 주위 사람이 만드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누를 수가 없었다. 아리자와 박사는 자연과학자나 기술자가 아니

화 실히 일본의 과학기술수준은 고산준봉을 방불케 할 정도로 높게 솟아 있다. 세계 최고봉인 미국의 과학기술수준과 견주어지고 있는 처지니 개발도상국들과의 차이는 여간 큰 것이 아니다.

미국, 유럽 등에서 연구를 한 경험이 있는 우리 과학기술자들이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 과학기술연구현장을 시찰하고 나서는 생각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 있다고 혀를 내두르기 일쑤였다.

서구 이외의 지역에 서구식 과학기술을 건설한 나라는 오직 일본 뿐이라고 뽑내는 일본의 과학기술사가(科學技術史家)까지 있을 정도인 것이다.

일본의 과학기술이 이런 정도로 크게 발달하는데는 명치유신(1868)



李鍾秀
(기술평론가/ 본지 편집위원)

고 제2차 세계대전 전에 도쿄테이고 쿠다이가쿠(東京帝國大學)의 경제학 교수였다. 전공은 통계학이다. 그는 좌익운동에 가담하여 대학을 휴직했고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전쟁이 끝나고 석탄위원장 등으로 산업부흥에 힘썼고 요시다(吉田)총리(수상)의 2번에 걸친 경제안정본부장 취임을 거절했다. 그는 사회당추천으로 1956년에 초대 원자력위원회에 임명된 뒤 3기(9년)를 근무한 뒤 위원장대리로 8년을 근무하는 등 17년동안 원자력위원회에 몸을 담고 원자력정책 수립 및 시행에 큰 공헌을 했다. 원자력위원회를 떠난지 1년만에 일본 원자력산업회의 회장에 취임한 것이 77세 때로서 그뒤 15년간을 원자력산업계 뿐 아니라 원자력전분야에 걸친 지도자로서 일본의 원자력과학기술 및 산업을 확고한 궤도 위에 올려 놓았다. 그는 현역에 있으면서 1988년 3월에 93세로 세상을 떠났다.

그를 존경하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 더 한층 열성적인 숭배자인 이시가와 긴야(石川欽也)라는 과학기술언론인은 일본의 3대 일간지중의 하나인 마이니치신문(毎日新聞)의 과학기자 생활을 거쳐 덴료쿠신문(電力新聞) 편집위원으로서 원자력평론에 힘을 썼다. 그는 「원자력정책의 검증과 가는 곳」이라는 그의 저서를 나에게 주면서 안 표지에 “아리자와 히로미션생의 혼을 간에 새기면서 서명합니다”라고 썼다.

아리자와회장의 뒤를 이어 일본원자력산업회의 회장으로 취임해서 오늘날 일본과학기술계의 지도자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람이 무카이보 다카시(向坊隆)박사다.

필자도 몇차례 만난 적이 있는 소탈한 성품의 무카이보회장은 도쿄다이가쿠(東京大學)교수시절 초대 주미과학관(과학아타세)으로 부임, 미·일 원자력협정 체결에 진력했고 뒤에 도쿄다이가쿠 총장을 지냈다. 대학을 떠나서는 9년간 원자력위원, 원자력위원장대리 등을 거치면서 「원자력개발이용 장기계획」개정 등에 뛰어난 지도력을 발휘했다. 그는



▲ 93세 현역으로 세상을 떠난 아리자와 전 일본원자력산업회의 회장



▲ 일본 학술회의를 창설했고 부회장, 회장을 거치면서 크게 육성시킨 가야 박사

과총 崔亨燮(1920년생)회장보다 3살 연장이지만 돈독한 우인관계에서 한·일협력의 유대를 튼튼히 하는데 힘을 함께 하고 있다.

외무대신 지낸 과학지도자도

오랫동안 과학계의 주류에서 지도자로서 여러 가지 큰 일을 한 가야

세이지(茅誠司·1898년생)박사는 금속물리학자로서도 일류였다. 도호쿠다이가쿠(東北大學)를 나와서 호카이도다이가쿠(北海道大學)교수가 됐다가 뒤에 도쿄다이가쿠교수를 거쳐 총장까지 된 아주 이례적인 과학자였다. 학술회의(學術會議)창설에 공을 세웠고 부회장, 회장을 지낸 과학계의 명실상부한 지도자였다. 「소니」의 장학재단 이사장으로 있을 때 「소니」빌딩으로 찾아가 만난 적이 있었는데 80세가 넘어서도 정정했고 친절히 대해 주었던 것이 기억에 남아있다. 내가 만난지 얼마 안되어 서거했는데 온 과학계가 애석해 했다.

외무부 대신을 지낸 나카야마 타로(中山太郎·1924년생)박사는 정치인과학자라고 하면 좋을까. 의사출신이면서 참의원 의원이 돼 알파클럽을 국회에 만들어 과학기술에 열의가 있는 의원들을 다수 규합, 세미나, 강연회 등을 개최하고 저서도 「기술입국」, 「연구입국」 등 여러 권을 내놓았다. 이분도 崔亨燮회장과 막역한 친구관계로서 崔회장이 장관을 그만둔 뒤에 연락사항을 직접 필자에게 전화로 전달하기도 했다.

고(故) 千炳斗 전KA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원장이 방일했을 때 아카사카(赤坂)의 고급요정에서 대접을 받은 뒤 룯봉기(六本木)디스코 클럽에까지 그가 몸소 안내를 해 따라 즐겁게 보낸 일이 있었다. 친절하면서도 멋을 아는 과학자요 정치인이라는 인상을 나는 간직하고 있다. 崔회장과 의 끊임없는 관계를 보면 지도자는 의리를 굳게 지키는 사람이구나라는 느낌을 갖지 않을 수 없다. ㉟